

| 18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2612.34 | ↑ 코스닥 | 745.54 |
| | (+1.65) | | (+2.03) |
| ↑ 금리 (미국 9년) | 2.610 | ↑ 환율 (원-달러) | 1449.80 |
| | (+0.009) | | (+1.90) |



대내외 복합위기 돌파... '미래 먹거리·체질개선' 집중

막 오른 전자업계 주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전자업계의 주춤이 시즌이 이번주 본격 개막한다. 올해 주춤은 단순 경영 보고를 넘어 신사업 전략과 이사회 개편 등 체질개선이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관세 리스크와 함께 후발 경쟁국들과의 기술력 격차가 축소되면서 국내 전자기업들의 대내외 경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 돌파를 위한 미래 먹거리 확보와 대응 방안 등의 핵심과제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일, LG디스플레이 20일, LG이노텍 24일, LG전자 25일 순으로 각각 주주총회를 연다.

삼성, 반도체 경쟁력 회복 '화두' 신규이사 등 경영진 메시지 주목

LGD, 기술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LG이노텍, 美 관세대응 인재 영입 LG전자, 열린주춤으로 전략 공유

삼성전자는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삼성전자의 이번 주주총회는 최근 반도체 등 주력 사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만큼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화두는 반도체 부문 경쟁력 회복방안이 될 전망이다. 그간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관련 대외적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며 주주들의 따끔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춤에서 이사회 내 반도체 전문가의 비중을 늘린다.

새 사외이사로 반도체 전문가인 이혁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내정하고 사내이사로는 전영현 DS 부문장과 송재혁 DS부문 CTO 겸 반도체연구소장 선임 안전을 주춤에서 승

인받을 예정이다. 부진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을 보강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삼성전자는 주주통신문을 통해 "AI 산업 성장이 만들어 가는 미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로봇·메드텍·차세대 반도체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규 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메시지도 관심이다. 경영진들은 HBM(고대역폭메모리)의 엔비디아 공급 진행 상황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기대가 쏠리고 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주춤에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AI(인공지능) 컴패니언 로봇 볼리와 갤럭시 AI 등 신기술을 전시할 계획이다.

오는 25일 주춤을 여는 LG전자는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열린 주춤'으로 진행한다. 경영진이 총출동해 사업 전략과 비전을 투명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전을 상정한다. LG전자는 LG 부회장이 권봉석 기타비상무이사 와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 교수인 류종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각각 이사로 재선임하는 안전도 올린다. 아울러 강성춘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전도 상정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도 이번 주춤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비롯해 정관 변경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는 임기가 만료되는 하범중(췌)LG 경영지원부부장(CFO)을 대신해 이상우(췌)LG 경영관리부부장 겸 전자팀장을 선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한다. 기술 전문가를 총원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LG이노텍은 이번 주춤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기 위한 전문 인재로 김정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한다. 김 부회장이 통상 전문가로 꼽히는 만큼 증폭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김 부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교섭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LG이노텍은 지난 2014년 멕시코 산후안델리오에 3만4000㎡ 규모의 생산 시설을 마련하고 모터, 자율주행 센서, 차량용 카메라 모듈 등을 생산 중이다.

또 전장, FC-BGA 등 신사업 강화에 대한 발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尹 탄핵 선고 임박... 긴장감 도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가 경찰차로 막혀 있다. <관련기사 6면> /손진영 기자

전세도 양극화... 전세대출 증가폭 3년來 최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 5개 광역시 등 비수도권 하락세 전세사기 우려, 월세비중도 상승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기존에 매매에서만 서울과 지방의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과 달리 올해 들어서는 전세시장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이 격차를 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은 최근 3년來 최대치로 늘었다. 대출 규제가 주로 매매에 집중되면서 금리 인하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됐다.

18일 KB주택시장리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01% 하락했다. 지난 2023년 8월 이후 1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수도권은 아파트 전세 수요가 지속되면서 0.05% 올라 가격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비수도권의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국 전세가격을 끌어 내렸다. 5개 광역시와 기타지방이 각각 0.06%, 0.07% 하락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실수요자와 시장 침체에 따른 매매 대기 수요 등에도 아파트 전세가격까지 5개 광역시(-0.04%)와 기타지방(-0.10%)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달 0.07% 상승했다. 수도권 전세가격이 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상승 전망으로 돌아섰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전세자금대출은 전월 대비 1조2000억원 늘면서 지난 2022년 2월(1조4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계절적으로 이사철 자금 수요가 증가한 데다 금리 인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격 상승세와 전세사기 우려에 월세 거래 비중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올해 1월 전월세 거래량은 전세가 8만1888건, 월세가 11만8789건으로 월세 비중이 59.2%에 달했다. 특히 비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은 73.7%로 전년 대비 5.1%포인트(p), 5년 평균 대비로는 21.1%p나 높아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은, 내달 디지털화폐 CBDC 실거래 테스트

디지털화폐 프로젝트 '한강' 실험

한국은행이 오는 4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에 나선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디지털화폐 관련 프로젝트 명칭을 '한강'으로 정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실거래 테스트에 돌입기로 했다. 은행들은 평소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

고 결제하는데, 한은과 은행권은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지 살펴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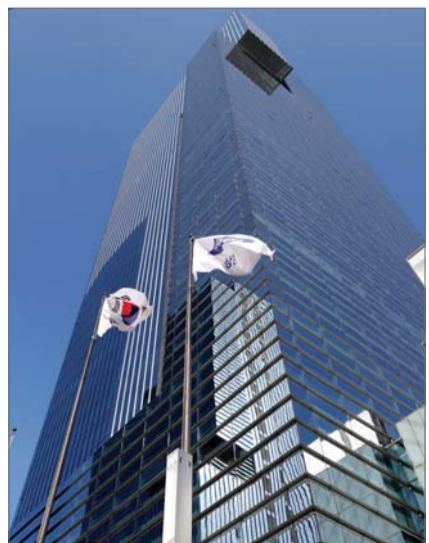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tokenised commercial bank deposits)을 발행하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은의 실거래 실험에는 약 10만명

이 참여하게 된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참가자들은 자신의 은행 예금을 디지털 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변환해 편의점과 카페, 서점, 마트, 온라인 쇼핑 등에서 결제할 때 쓸 수 있게 된다.

참여 시중은행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등 7곳이며 1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나유리 기자 yul15@



삼성전자 사옥 사옥 모습 /뉴시스

메트로 한줄뉴스



- ▲ 국방부, 김현태 707단장 등 계엄 관여자 6명 보직해임
- ▲ 원희룡, 이재명 '윤 탄핵 신속 선고' 요구에 "이중잣대 뻘뻘" /사진 뉴시스

- ▲ 최 대통령 권한대행 "부동산 시장 우려 커져... 관계부처 필요시 대응방안 강구"
- ▲ 통일차관, 북 억류 선교사 가족 만나... "해결 노력 지속"

- ▲ 홍준표 "미국, 민감국가에 대한민국 추가, '핵개발' 보단 민주당 '친중반미'가 자극"
- ▲ 북한, 후티 때린 미국에 "불법무도...강력 규탄 배격"